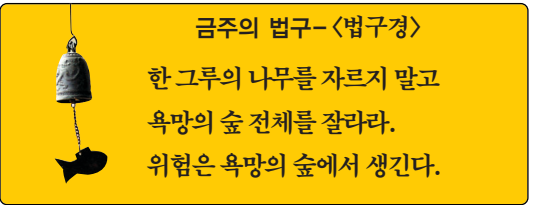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2월 21일) · 주간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39호 2015년 4월 9일 목요일

300여 세계 고승 광화문서 '평화 기원 법석' 펼친다

세계평화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5월 15~18일 개최

2500여 국내외 스님 지구촌 평화위해 기도 종교인평화선언 발표도 달라이라마 초청 무산

전세계 고승들이 모여 한반도와 지구촌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법석이 마련된다. 봉축행사기간동안 열리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의 주요 일정이 발표됐다.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위원장 지원)는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이하 기원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개국 종교지도자 300여 명을 비롯해 국내 종교계 및 주요 정관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 대회 참석이 확정된 고승 명단을 보면 캄보디아 승왕 텡퐁 스님을 비롯해 프랑스 담마라타 유네스코 불교협회 책임자, 인도 룡장 아쇼카미션 회장, 수단모 후주불교연합회장, 방글라데시 우파나조타 골드사원 원장, 프라나난다 그린하트 승가대 총장, 네팔 노르부 타당사원 회장, 스리랑카 니양고다 시라중 부총장, 고다가마 승가대 총장, 베트남 응고단 국립불교집행 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행사는 5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의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 행진(16일 오후 4시, 동대문-광화문),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회(17일 오전 9시, 조계사), 세계종교지도자 현충원 참배(16일 오전 9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16일 오후 1시,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전통문화수레(17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전통시장) 등이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종교인평화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기원대회주요일정

일정	사업명	시간	장소
15일 (금)	초청인사입국, 무대설치 환영만찬	18:00-19:00	호텔
16일 (토)	현충원 참배	09:00-11:00	현충원
	세계평화 종교지도자 원탁회의	13:00-15:30	호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행진	15:30-18:00	동국대학교-광화문
17일 (일)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18:00-21:00	광화문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무차대회	09:00-13:00	조계사
	연등회 문화행사 순례	13:00-14:00	안국동
	전통문화수레(전통사찰방문)	14:00-18:00	봉은사
	환송만찬	18:00-20:00	호텔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총 2500여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입정에 드는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평화법문과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이번 기원대회 관계로 연등회는 예년과 달리 1시간 가량 앞당겨진다. 봉행위원회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광복 관련 유공자 초청도 추진해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원대회에서 초청여 명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입정에 드는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평화법문과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이번 기원대회 관계로 연등회는 예년과 달리 1시간 가량 앞당겨진다. 봉행위원회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광복 관련 유공자 초청도 추진해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 출가·열반 정신 오색풍선에

부대중은 이날 식별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풍선에 붙인 후 하늘 위로 날리는 의식을 통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다.

출가·열반제일을 기념하는 오색풍선이 정동진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삼광사(주지 무늬)는 출가·열반제일을 맞아 문화 소외 계층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출가체험힐링여행' 프로그램을 3월 26일~27일 진행했다. 350여 사 글=정혜숙 기자·사진제공=삼광사

위령재부터 템플스테이까지 세월호 참사 1주기, 불교 추모행사 잇달아

조계종 4월 14일 추모법회

16일 전국 사찰 타종식

불교사회학 등 3대 종교 단체

15일 '사회적 책무' 세미나

복지재단도 구호 체계 포럼

미항사 등 위로 템플스테이

팽목항 현지서 추모제도

지난해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불교계가 추모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월 14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추모의 의미인 타종 5타로 시작하는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분향 및 추도사, 전병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추모사,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의 호소문 발표, 발원문 낭독, 염불 천도 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는 4월 16일 오전 10시 사시예불에 맞춰 추모의 의미인 타종 5타와 추모발원을 진행한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전문 연구단체들이 한데 모여 세월호 참사를 통해 종교의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와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는 4월 15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교 측에서는 박명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세월호의 윤리학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연구소장 법안 스님이 토론자로 나선다.

가톨릭에서는 경동현 우리신학연구소장이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 성찰'을 발표하며 의정부교구 현우 신부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개신교에서는 김희현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메시아의 두 계보, 한국 개신교의 양면성의 뿌리'를 주제로 발표

를, 토론자는 정경일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의 정경일 원장이 나선다.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함께 울었던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템플스테이도 마련된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안산시와 인접한 용인 법륜사에서 '희망으로 피어나라' 콘서트를 연다. 4월 1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콘서트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며, 참가자를 포함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안양시 청소년 교향악단은 가수의 꿈을 키우던 단원고 학생이 생전에 부른 '거위의 꿈'을 연주하며, 바이올리니스트 김형선, 국악과 성악을 넘나드는 '마음'의 공연과 난타무대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고 이후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숙소를 지원해 온 진도 썩게사도 나섰다. 여전히 슬픔이 머물러 있는 팽목항과는 15분 거리, 진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썩게사의 '우리 마음의 힐링' 템플스테이는 4월 10일~12일, 17일~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된다. 마음치유를 위한 명상과 108배를 통해 휴식과 위안을 전할 예정

이다.

실종자의 귀환을 염원하며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해남 미항사와 주지 금강 스님도 위로와 추모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세월호 1주기 추모 순례 템플스테이'는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다. 108배, 명상과 팽목항 순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기간은 4월 11일부터 19일까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도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앞서 재난관리체계의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제2차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기환 서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한편, 진도 팽목항에서는 진도사 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팽목항 법당에서 세월호 인양, 희생자 극락왕생, 실종자 수습 등을 발원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4월 16일에는 낮 12시 선원사 문천스님의 자장면 공양 후 오후 1시 추모제가 열린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할렙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창을 생활화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회·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회 | 현대불교신문사·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동산반야회·공림공양회·여여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 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을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불타봉사단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